

스토리 사커



거스 히딩크 감독(왼쪽)은 2002 한일월드컵 당시 국내 디자이너가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FC 박진섭 감독(가운데)은 지난해 징크스 때문에 한 여름에도 겨울양복을 입고 벤치를 지켰다. 올해 성남FC 김남일 감독은 매 경기 검은 마스크에 검은 색 정장을 한 '인블랙'으로 주목받고 있다.

‘패션 전술’을 아십니까?

히딩크 ‘태극무늬 넥타이’로 4강 이끌고 돌풍 박진섭 감독 ‘V의 겨울양복’ 여름까지 입기도 올현 김남일 감독 4G 무패 ‘올 블랙’ 패션 화제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입는 야구 감독과 달리 축구 감독의 의상은 비교적 자유롭다. 취향에 맞게 트레이닝복이나 캐주얼 차림 또는 깔끔한 정장을 고른다. 하지만 패션 감각이 탁월한 몇몇 감독들을 제외하면 벤치의 의상으로 눈길을 끌기란 쉽지 않다.

팬들의 관심이 감독의 패션에 쏠린 대표적 케이스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한국을 4강으로 이끈 탁월한 지도력은 물론이고 그의 넥타이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당시 중요 경기에 국내 디자이너가 제작한 넥타이를 매고 나와 승리를 거뒀다. 태극과 팔괘문양을 넣어 만든 히딩크 넥타이는 그야말로 행운의 상징이었다. 벤치에 선 감독의 넥타이 종류를 확인하는 일도 일종의 재미였다. 국산이라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해당 넥타이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급기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감독의 의상 소품이 그 정도로 집중조명을 받은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K리그 감독의 양복이 화제였다. 광주FC 박진섭 감독은 시즌이 개막한 3월에 입은 겨울 양복을 한 여름까지도 입고 나왔다. 이유는 팀 성적 때문이었다. 양복 덕분인지 몰라도 그걸 입고 벤치에 서면 팀을 지지 않았다. 심지어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겨울 정장을 걸치는 게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다. 선수 시절 골을 넣으면 다음 경기에 그 축구화를 고집했던 그의 습관이 양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 양복이 달가울 리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부적’이었다. 광주는 7월 중순 안양과 20라운드에서 첫 패배를 당했지만 K리그2 최다인 19경기 무패(13승6무)를 기록했다.

올해 또 하나의 감독 패션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성남FC 김남일 감독이다. 그는 올 시즌 4라운드까지 검정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하고 벤치를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흡사하다고 해서 팬들 사이에선 ‘남메오네’로 불린다. 이제는 검정이 김 감독의 상징색이 돼버렸다.

검정은 성남 구단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새 인 까치의 깃털에서 따왔다. 홀 유니폼 색상이 검고, 엠블럼도 마찬가지로. 웅원가도 ‘뛰어라 성남, 블랙전사들’이다. 올해 슬로건도 ‘브랜드 뉴 블랙(Brand New Black)’이다. 온통 검다. 그 한 가운데 김 감독이 섰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취임 기자회견 때 검정 정장을 입었다. 그게 계기가 됐다. 개막하면서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재킷이나 셔츠, 시계, 바지, 구두 등도 같은 색상으로 맞춰 올 블랙을 완성했다. 서울과 4라운드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입은 건 아니다. 제 취향도 아니다”며 “예의상 1라운드부터 양복을 입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고 밝혔다. 성남은 4라운드까지 무패(2승2무)다. 팀이 지지 않는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구단도 김 감독에게 올 블랙을 권한다. 김찬규 홍보팀장은 “검은 색이 우리 팀 컬러와 맞고, 또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생각”이라며 “이는 감독님도 허락하셨다”고 전했다.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당분간 성남 벤치의 올 블랙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전북이 5월부터 영입 나선 아프리카 출신 공격수 ‘모두 바로’는?

EPL 출신 ‘특급 잉어’...이적 변수는 하늘길



전북은 EPL 경력이 돋보이는 잉어 모두 바로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측면 보강이 시급했던 까닭에 5월 초부터 영입작업을 진행했다. 사진 캡처 | 레딩FC 홈페이지

오른쪽 측면·2선까지 검증된 자원으로 페즈·문선민 동시이탈 대체 카드 한때 스완지...기성용에 AS 인연도 감비아 항공편 통제·비자발급 복잡 이달 내 선수단 합류 가능할지 고민

상상 첫 리그 4연패를 노리는 K리그1 전북 현대가 ‘특급 날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한 아프리카 감비아 태생의 전천후 공격수 모두 바로(Modou Barrow·28)다.

K리그 복수의 소식통은 3일 “전북이 바로의 영입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여름 선수이적시장의 보강 1순위로 정한 뒤 5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도 이적 성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왼쪽 잉어가 주 포지션으로 오른쪽 측면과 2선 공격수로도 활용 가능한 바로는 검증된 자원이다. 장기인 폭발적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강한 침투능력은 현재 전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전북은 ‘하나원큐 K리그1 2020’에서 3승1패(승점 9)로 선두지만 지난해까지 맹위를 떨친 로페즈(브라질·상하이 상강)와 문선민(상주 상무)의 동시 이탈로 비롯된 측면 불안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스웨덴에서 유소년선수로 성장해 프로 경력을 시작한 바로는 현지 명문 외스테르손트에서 뛰던 2014년, 이적료 189만 유로(약 26억 원)에 EPL 스완지 시티로 향했다. 감비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 안착한 바로는 한국축구의 인연도 있다. 당시 스완지에 몸담았던 기성용(31·RCDF마요르카)이 2016년 5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왼쪽 측면의 바로가 띄운 크로스를 발리

웃으로 연결해 골망을 가른 바 있다. 다만 임대 신분으로 보낸 시간이 꽤 길다. 노팅엄~블랙번~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선수로 활동했다. 2019~2020시즌에도 원 소속팀 레딩FC가 아닌 테니즐리스포르(터키) 소속이었다.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터키 슈퍼리그 기록은 24경기에서 3골·2도움이다. 영국에선 EPL과 챔피언십(2부)을 포함해 202경기에서 16골·19도움을 뽑았다. 그러나 바로의 전북 이적에는 큰 변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힌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바로가 머무는 곳은 완전히 국경을 통제된 상태로, 어렵게 비행편이 마련되더라도 지역 특성상 비자발급 등 이적절차가 훨씬 복잡한 테다 국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달 내 선수단 합류가 어려울 수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인천 킬러’ 무고사를 어찌할꼬

지난 시즌 14골 책임진 공격수를 시즌 상대 집중 견제에 침묵 케힌데 부상 이탈...부담 커져



케힌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개막 직후부터 골 가름에 시달리고 있다. 4경기(2무2패)에서 단 한 골을 뽑는 데 그쳤다. 기본적으로 인천은 수비에 무게를 실는 팀이다. 매 경기 수비 쪽으로 라인을 내려서 상대의 공세에 맞서곤 한다. 객관적 전력은 상대에 비해 떨어지는 팀들이 펼치는 일반적인 경기운영방식이다.

그러나 결국은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다. 무실점으로 버틴다고 해도 마냥 수비에만 치중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기껏해야 무승부다. 인천 또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2라운드까지는 무실점 벤틀기로 2무를 기록했지만, 이후 2경기에선 내리 패했다. 인천의 핵심 공격자원은 외국인 스트라이커 무고사(몬테네그로)다. 그는 지난해 팀이 뽑은 33골 중 14골을 책임졌다. 그러

나 올 시즌에는 아직 골이 없다. 매 경기 상대의 집중 견제가 무고사에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은 최전방의 무고사에게 볼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비 인원이 많다보니 무고사에게로 향하는 볼이 상대에게 차단되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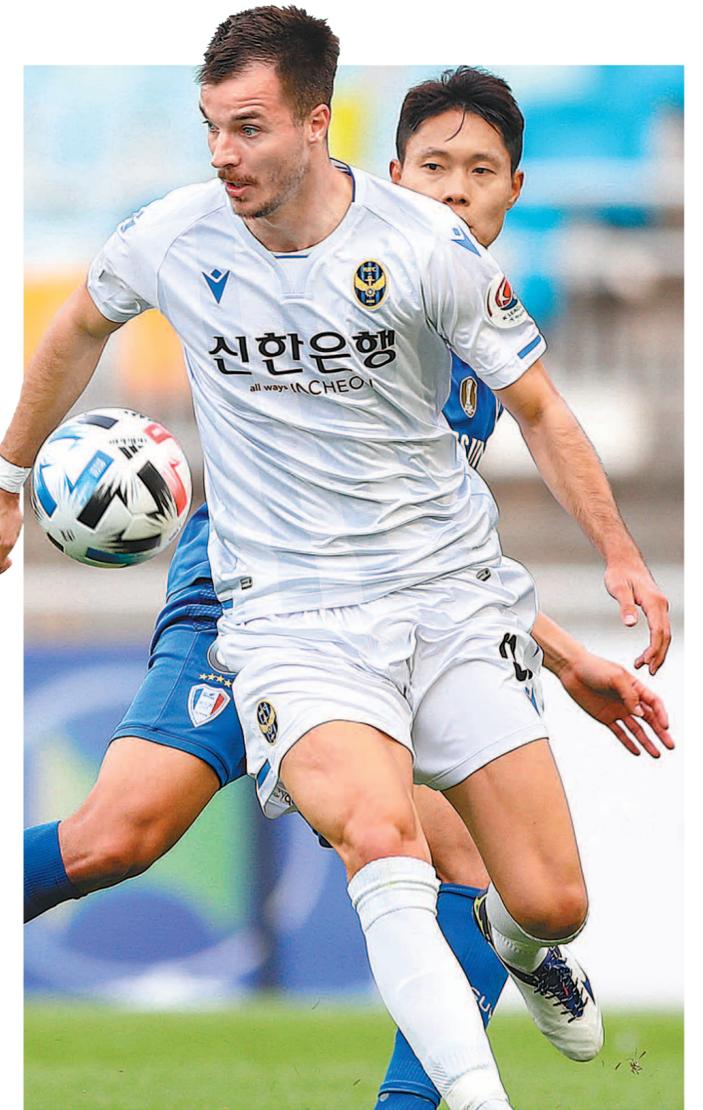
인천 임완섭 감독(49)도 무고사가 고립되는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비 라인을 올리자니 수비가 무너지고, 내려서 안정감을 높이자니 무고사가 고립되고 있다.

이틀 풀어줄 카드는 케힌데(나이지리아)이지만, 현재 개점휴업 중이다.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 케힌데는 지난달 23일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지장병원에서 받은 1차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 차례 더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1차 검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면, 사실상 올 시즌 경기 출전이 어렵다.

당장 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스트라이커를 추가로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 현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임 감독의 한숨 또한 깊어만 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득점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은 무고사(앞)의 골이 간절하다. 케힌데의 부상 이탈로 무고사의 부담은 더 커졌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성용, 계약 연장 분위기...K리그 유턴 시나리오는?

(마요르카)

‘마스터 키’ 기성용(31·RCDF마요르카)의 계약기간이 7월말로 연장될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2019~2020시즌 재개를 결정하면서다.

올해 초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K리그 복귀를 타진했다가 포기한 기성용은 마요르카와 단기계약을 했다. 여름이적시장에서 다시 행선지를 결정한다는 의지에 서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졌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라리가도 3월 12일(한국시간) 중단됐다. 3월 7일 에이바르와 27라운드 원정경기 후반 37분 교체 투입돼 마요르카 데뷔전을 치른 기성용도



기성용

긴 휴식에 들어갔다. 다행히 최근 리그 재개가 최근 결정됐다. 라리가는 12일부터 무관중으로 잔여시즌을 소화한다. 5월 소규모 훈련이 시작됐고, 지난주부터는 선수단 전체가 참가하는 풀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성용의 상황은 애매하다. 종전 계약 만료일(6월 30일)을 넘겨서까지 리그

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단 공식화되지 않았으나 기성용의 계약기간도 연장될 조짐이다. 기성용 측은 3일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현지에선 (시즌 종료시점인) 7월말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실 계약기간은 민감하다. 급여, 보너스 옵션 등이 갈려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마요르카는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선수단 급여를 15% 삭감했다. 단, ‘리그 재개 시’ 미지급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테라 임금체불 우려는 없어 보인다. 그 대신 다른 문제가 있다. 거취다. 7월

라리가 재개...7월말로 연장될 듯 7월22일까지 등록해야 복귀 가능

까지 소속팀에 남을 경우, K리그 복귀는 어려워질 수 있다. K리그 선수 추가등록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기성용이 라리가 종료와 함께 FA 신분을 얻어도 K리그 팀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여유는 거의 없다.

다만 유럽 내 이동은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힌 올 여름에 한해 9월까지도 이적시장이 열릴 공산이 높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리그당 최대 16주까지 선수등록기간을 운영토록 했는데, 유럽은 K리그와 달리 겨울보다 여름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